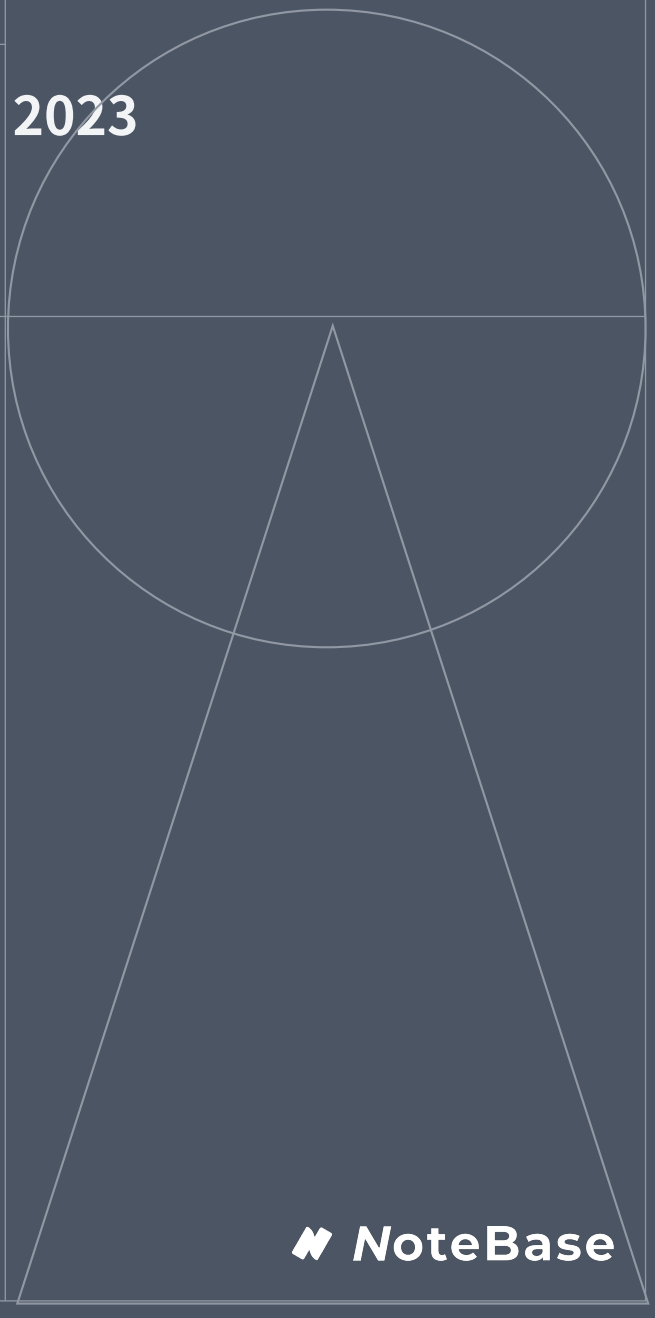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9급 · 국어 · 2023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9급 · 국어 · 2023

공무원/지방직/9급 · 국어 · 2023

문 1. ㉠~㉣의 말하기 방식을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김 주무관: AI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최 주무관: ㉠ 저도 요즘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어요.
김 주무관: ㉡ 그런데 어떻게 준비해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이에요.
최 주무관: 설명회에 참여할 청중 분석이 먼저 되어야겠지요.
김 주무관: 청중이 주로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알면 준비할 때 유용하겠네요.
최 주무관: ㉢ 그럼 청중의 관심 분야를 파악하려면 청중의 특성 중에서 어떤 것들을 조사하면 좋을까요?
김 주무관: ㉣ 나이, 성별, 직업 등을 조사할까요?

① ㉠: 상대의 의견에 대해 공감을 표현하고 있다.
② ㉡: 정중한 표현을 사용하여 직접 질문하고 있다.
③ ㉢: 자신의 반대 의사를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④ ㉣: 의문문을 통해 상대의 의견을 반박하고 있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의 '저도'는 설명회가 필요하다는 상대의 생각에 동의한다는 표현이다.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어요'라고 덧붙여 자신도 필요성을 깊이 느낀다며 **공감**을 나타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은 김 주무관의 '설명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저도'라고 호응하고, 자신도 그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고 말한다. 상대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같은 생각임을 표현**하고 있다.

② X: ㉡은 '어떻게 준비해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이에요'라는 평서문이다. 정중한 말투를 쓰지만 상대에게 직접 질문하는 형식은 아니다. 자신의 고민을 밝힘으로써 **상대의 조언을 간접적으로 구하는** 말하기이다.

③ X: ㉢은 청중의 관심 분야를 알면 준비에 도움이 된다는 앞선 말을 받아, '어떤 것들을 조사하면 좋을까요?'라고 묻는다. 반대 의사를 우회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조사할 항목에 대한 상대의 의견**을 구하고 있다.

④ X: ㉣은 의문문이지만 상대 의견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반박하지 않는다. 조사할 항목을 묻는 ㉢에 대해 나이·성별·직업을 구체적인 후보로 제시하며 **이를 조사하자고 제안**하고 상대의 의향을 확인한다.

NoteBase

문 2. (가)~(다)를 맥락에 따라 가장 자연스럽게 배열한 것은?

독서는 아이들의 전반적인 뇌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가) 그에 따르면 뇌의 전두엽은 상상력을 관장하는데, 책을 읽으면 상상력이 자극되어 전두엽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
(나) A 교수는 책을 읽을 때와 읽지 않을 때의 뇌 변화를 연구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다) 이처럼 책을 많이 읽으면 전두엽이 훈련되어 전반적인 뇌 발달의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 결과는 교육 현장에서 실증된 바 있다.
독서를 많이 한 아이는 학교에서 더 좋은 성적을 낼 뿐 아니라 언어 능력도 발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① (나) - (가) - (다)
② (나) - (다) - (가)
③ (다) - (가) - (나)
④ (다) - (나) - (가)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가)의 '그'는 앞서 소개된 **A 교수**를 가리킨다. (다)의 **'이처럼'**은 (가)에서 설명한 독서와 전두엽 활동의 관계를 받아 정리한다.

올바른 순서

(나) → (가) → (다)

(나): 첫 문장의 '독서가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화제에 이어, 독서 여부에 따른 뇌 변화를 연구한 A 교수를 소개한다. 이 인물이 먼저 제시되어야 (가)의 **'그'가 가리키는 대상**이 분명해진다.

(가): '그에 따르면'으로 A 교수의 연구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지문은 책을 읽을 때 상상력이 자극되어 전두엽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고 설명하며, 이 내용은 (다)의 **'전두엽이 훈련되어'**라는 설명의 바탕이 된다.

(다): **'이처럼'**으로 앞서 설명한 독서와 전두엽 활동의 관계를 정리하고, 그 효과가 교육 현장에서 실증되었다는 내용으로 나아간다. 이어지는 마지막 문장은 성적과 언어 능력의 발달을 제시하여 그 실증 결과를 구체화한다.

NoteBase

문 3. ㉠~㉤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지원은 자는 동생을 깨웠다.
○ 유선은 도자기를 ㉡ 만들었다.
○ 물이 ㉢ 얼음이 되었다.
○ ㉤ 어머나, 현지가 언제 이렇게 컸지?

① ㉠: 동작의 주체를 나타내는 주어이다.
② ㉡: 주어와 목적어를 요구하는 서술어이다.
③ ㉢: 서술어를 꾸며주는 부사어이다.
④ ㉤: 문장의 다른 성분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지 않는 독립어이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의 '얼음이'는 서술어를 꾸미는 부사어가 아니라, **'되다'가 요구하는 보어**이다. '물이'가 주어이고, '얼음이'는 물이 무엇으로 바뀌었는지를 나타내어 서술어의 뜻을 보충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의 '지원은'은 '깨웠다'라는 동작을 하는 대상을 나타내는 **주어**이다. '누가 자는 동생을 깨웠는가?'에 해당하는 성분이며, 보조사 '은'이 붙어 있어도 이 문장에서는 주어로 기능한다.

② O: ㉡의 '만들었다'는 주어 '유선은'의 동작을 설명하는 서술어이다. '누가 무엇을 만들다'라는 구조에서 **주어와 목적어를 요구**하므로 두 자리 서술어이다. 이 문장에서는 '유선은'이 주어, '도자기를'이 목적어이다.

③ X: ㉢의 '얼음이'는 부사어가 아니라 **보어**이다. 보어는 '되다', '아니다' 앞에서 서술어의 불완전한 뜻을 보충하는 필수 문장 성분이다. '물이 얼음이 되었다'에서 주어는 '물이'이고, '얼음이'는 변화의 결과를 나타내어 '되었다'의 뜻을 보충한다. '이'가 붙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어로 판단해서도 안 된다.

④ O: ㉤의 '어머나'는 놀람을 나타내는 감탄사로, 문장에서 **독립어**로 쓰였다. 뒤의 '현지가 언제 이렇게 컸지?'와 주어·서술어 등의 문법적 관계를 직접 맺지 않고 말하는 이의 감정을 나타낸다.

NoteBase

문 4. 4. ㉠~㉤과 바꿔 쓸 수 있는 유사한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서구의 문화를 ㉠맹종하는 이들이 많다.
◯ 안일한 생활에서 ㉡탈피하여 어려운 일에 도전하고 싶다.
◯ 회사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자.
◯ 연못 위를 ㉤부유하는 연잎을 바라보며 여유를 즐겼다.

① ㉠: 무분별하게 따르는
② ㉡: 벗어나
③ ㉢: 끌어올리기
④ ㉤: 헤엄치는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의 '부유하는'은 물 위에 **떠 있는** 모습을 나타낸다. 몸을 움직여 물속을 나아가는 '헤엄치는'으로 바꾸면 연잎의 상태를 나타내는 원래 의미가 달라진다.

선지별 해설

① O: '맹종하다'는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덮어놓고 따르다는 뜻이다. 서구의 문화를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태도를 나타내므로 **'무분별하게 따르는'**으로 바꿔 쓸 수 있다.

② O: '탈피하다'는 껍질이나 가죽을 벗는다는 본래 뜻에서 나아가, 어떤 상태나 처지에서 벗어나다는 뜻으로도 쓰인다. 여기서는 **안일한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을 뜻하므로 '벗어나'로 바꿔 쓸 수 있다.

③ O: '제고하다'는 수준이나 정도를 높이다는 뜻이다. 회사의 생산성을 높이자는 문맥이므로 **'끌어올리기'**로 바꿔 쓸 수 있다.

④ X: '부유하다'는 물 위나 공기 중에 떠 있다는 뜻이다. 여기서는 연잎이 연못의 **물 위에 떠 있는** 상태를 나타내므로 '떠 있는'으로 바꾸는 것이 알맞다. '헤엄치다'는 몸을 움직여 물속을 나아가는 동작을 뜻하므로 원래 표현과 의미가 다르다.

NoteBase

문 5.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청산(靑山)은 내 뜻이오 녹수(綠水)ᄂᆞᆫ 님의 정(情)이
녹수(綠水)ㅣ 흘너간들 청산(靑山)이야 변(變)ᄒᆞᆯ손가
녹수(綠水)도 청산(靑山)을 못 니저 우러 녜여 가ᄂᆞᆫ고.

(나) 청산(靑山)ᄂᆞᆫ 엇뎨ᄒᆞ야 만고(萬古)애 프르르며
유수(流水)ᄂᆞᆫ 엇뎨ᄒᆞ야 주야(晝夜)애 긋디 아니ᄂᆞᆫ고
우리도 그치디 마라 만고상청(萬古常靑)호리라.

① (가)는 '청산'과 '녹수'의 대조를 활용하여 화자가 처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② (나)는 시각적 심상과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③ (가)와 (나) 모두 대구를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④ (가)와 (나) 모두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나)의 '푸르르며'는 **시각적 심상**을 드러내지만, 소리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청각적 심상은 없다. 물이 흐른다는 내용만으로 물소리를 표현했다고 볼 수는 없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가)는 '청산'을 화자의 뜻에, '녹수'를 임의 정에 빗댄다. **변하지 않는 청산과 흘러가는 녹수**의 대조를 통해 화자는 마음을 지키지만 임의 마음은 변하여 떠나가는 상황을 제시한다. 마지막에는 녹수가 청산을 잊지 못해 운다고 표현하여 떠나는 임에게도 미련이 남아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낸다.

② X: (나)의 '푸르르며'는 청산의 빛깔을 보여 주므로 시각적 심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유수가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흐른다는 것은 움직임과 지속성을 나타낼 뿐, **소리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청각적 심상은 아니다**. (나)는 청산의 변함없는 푸름과 유수의 끊임없는 흐름을 통해 사람도 그처럼 변함없이 살아가려는 뜻을 드러낸다고 이해해야 한다.

③ O: 대구는 비슷한 문장 구조를 짝지어 뜻과 운율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가)의 '청산은 내 뜻이오'와 '녹수는 님의 정이'는 각각 자연물과 사람의 마음을 대응시키는 구조를 이룬다. (나)의 초장과 중장도 청산과 유수를 각각 내세워 그 속성을 묻는 **유사한 문장 구조**를 이루므로, 두 작품 모두 대구를 활용한다.

④ O: 설의적 표현은 답을 요구하기보다 의문 형식을 통해 뜻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가)의 '청산이야 변할손가'는 청산처럼 자신의 마음도 변하지 않는다는 뜻을 강조하여 임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드러낸다. (나)에서 청산이 늘 푸르고 유수가 밤낮으로 그치지 않는 까닭을 묻는 표현은 자연의 지속성을 부각하며, 종장의 다짐과 이어져 **자연처럼 변함없이 살아가려는 의지**를 드러낸다.

NoteBase

문 6. 다음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교환가치는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가치이며, 사용가치는 어떤 상품을 사용할 때 느끼는 가치이다. 전자가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객관적이라면, 후자는 개인에 따라 다르다는 점에서 주관적이다. 상품에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가 섞여 있는데, 교환가치가 아무리 높아도 '나'에게 사용가치가 없다면 해당 상품을 구매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백만 원짜리 공연 티켓을 판매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 공연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등의 댓글들을 보고서 애초에 관심도 없던 이 공연의 티켓을 샀다. 그에게 그 공연의 사용가치는 처음에는 없었으나 많은 댓글로 인해 사용가치가 있을 것으로 잘못 판단한 것이다. 안타깝게도, 그는 그 공연에서 조금도 만족하지 못했다.

이 사례에서 볼 때 건강한 소비를 위해서는 구매하려는 상품의 사용가치가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된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 없이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휩쓸려 어떤 상품의 사용가치가 결정될 때, 그 상품은 '나'에게 쓸모없는 골칫덩이가 될 수 있다.

① 사용가치보다 교환가치가 큰 상품을 구매해야 한다.

② 상품을 구매할 때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두루 고려해야 한다.

③ 상품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반영해서 상품을 구매해야 한다.

④ 상품을 구매할 때 사용가치가 자신의 필요에 의해 결정된 것인지 신중하게 따져야 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다른 사람의 호평 때문에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은 상품도 쓸모가 있다고 잘못 판단할 수 있다. 건강한 소비를 하려면 상품의 사용가치가 **자신의 필요에 근거한 것인지** 따져야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첫 문단은 교환가치가 아무리 높아도 자신에게 사용가치가 없으면 상품을 구매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사용가치보다 교환가치가 커야 한다는 구매 기준은 제시하지 않는다. 두 가치의 크기를 비교하기보다 **자신에게 실제로 쓸모가 있는지** 살펴야 한다.

② X: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구분은 첫 문단에서 제시한 설명의 출발점이다. 글의 중심은 두 가치를 두루 고려하라는 데 있지 않고, **사용가치가 형성된 과정을 성찰**하라는 데 있다. 다른 사람의 말에 휩쓸려 사용가치를 잘못 판단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고쳐야 한다.

③ X: 공연 티켓 구매자는 다른 사람들의 호평을 보고 관심도 없던 공연에 사용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만족하지 못했다. 이 사례는 타인의 평가를 반영한 구매를 권장하는 근거가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따지지 않고 타인의 말에 휩쓸리는 소비**를 경계하는 근거이다. 타인의 평가에 앞서 그 상품이 자신에게 필요한지 살펴야 한다.

④ O: 마지막 문단은 건강한 소비를 위해 상품의 사용가치가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되었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밝힌다. 사용가치는 상품을 사용할 때 느끼는 가치로, 개인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과 자신에게 쓸모가 있는 것은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의 필요에 따라 사용가치를 판단했는지** 신중하게 따져야 한다. 이 내용은 공연 티켓 구매 사례에서 얻은 교훈과 마지막 문단의 주장을 함께 담고 있다.

NoteBase

문 7. ㉠~㉤ 중 어색한 곳을 찾아 수정하는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선 후기에 서학으로 불린 천주학은 '학(學)'이라는 말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종교적인 관점에서보다 학문적인 관점에서 받아들여졌다. 당시의 유학자 중 서학 수용에 적극적인 이들까지도 서학을 무조건 따르자고 ㉡주장하지는 않았는데, 서학은 신봉의 대상이 아니라 분석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조선 사회를 바로잡고 발전시키기 위해 새로운 학문과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외부에서 유입된 사유 체계에는 양명학이나 고증학 등도 있어서 서학이 ㉢유일한 대안은 아니었다. 그들은 서학을 검토하며 어떤 부분은 수용했지만, 반대로 어떤 부분은 ㉣지향했다.

① ㉠: '학문적인 관점에서보다 종교적인 관점에서'로 수정한다.

② ㉡: '주장하였는데'로 수정한다.

③ ㉢: '유일한 대안이었다'로 수정한다.

④ ㉣: '지양했다'로 수정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어떤 부분은 수용했지만, 반대로'라는 문맥에는 받아들이지 않고 피하거나 물리쳤다는 뜻의 **'지양했다'**가 알맞다. '지향했다'는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갔다는 뜻이므로 수용과 대조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X: ㉠은 원래 표현을 유지해야 한다. '학(學)'이라는 말과 뒤의 '신봉의 대상이 아니라 분석의 대상'이라는 설명은 서학을 **종교보다 학문의 관점에서** 받아들였다는 뜻이다. 이를 '학문적인 관점에서보다 종교적인 관점에서'로 바꾸면 글의 설명과 어긋난다.

② X: ㉡은 '주장하지는 않았는데'를 유지해야 한다. 서학을 분석의 대상으로 보았으므로, 수용에 적극적인 유학자들도 **무조건 따르자고 주장한 것은 아니다**. '주장하였는데'로 바꾸면 비판적으로 검토했다는 뒤의 이유와 맞지 않는다.

③ X: ㉢은 '유일한 대안은 아니었다'를 유지해야 한다. 새로운 사유 체계로 서학 외에도 **양명학이나 고증학**이 있었다고 했으므로 서학만이 유일한 대안이었다고 할 수 없다. 제시된 수정안은 다른 대안의 존재를 부정하여 앞의 내용과 모순된다.

④ O: '지향하다'는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는 뜻이고, '지양하다'는 어떤 것을 피하거나 물리친다는 뜻이다. 이 문장은 '수용했지만, 반대로'를 통해 받아들인 부분과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을 대비한다. 따라서 ㉣의 '지향했다'를 **'지양했다'**로 바꾸어야 문맥에 맞는다.

NoteBase

문 8. 다음 글의 맥락을 고려할 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능숙한 필자와 미숙한 필자는 글쓰기 과정 중 '계획하기'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전자는 이 과정에 오랜 시간 공을 들이는 반면, 후자는 그렇지 않다. 글쓰기에서 계획하기는 글쓰기의 목적 수립, 주제 선정, 예상 독자 분석 등을 포함한다. 이 중 예상 독자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_____ 때문이다. 글을 쓸 때 독자의 수준에 비해 너무 어려운 개념과 전문용어를 사용한다면 독자가 글을 이해하기 어렵게 된다. 글쓰기는 필자가 글을 통해 자신의 메시지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라는 점을 고려하면 계획하기 단계에서 반드시 예상 독자를 분석해야 한다.

① 계획하기 과정이 글쓰기 전체 과정의 첫 단계이기
② 글에 어려운 개념이나 전문용어를 어느 정도 포함해야 하기
③ 필자의 메시지를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기
④ 독자의 배경지식 수준을 고려해야 글의 목적과 주제가 결정되기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독자의 수준보다 어려운 개념과 전문용어를 쓰면 글의 이해가 어려워진다. 예상 독자를 분석하는 것은 표현을 독자의 수준에 맞추어 **필자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이다.

핵심 풀이

빈칸 뒤에서는 독자의 수준에 비해 어려운 개념과 전문용어를 사용하면 독자가 글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마지막 문장은 글쓰기를 필자의 메시지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이 두 내용을 연결하면, 예상 독자 분석은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을 조절하여 메시지 전달을 돕는 과정**이다. 따라서 빈칸에는 '필자의 메시지를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기'가 들어간다.

①의 '계획하기 과정이 글쓰기 전체 과정의 첫 단계'라는 설명은 계획하기의 순서에 관한 것이다. 빈칸은 계획하기에 포함된 **예상 독자 분석이 중요한 이유**를 요구하므로, 단계의 순서만으로는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②는 어려운 개념이나 전문용어를 어느 정도 포함해야 한다고 전제한다. 그러나 지문은 그런 표현의 사용 필요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의 수준에 비해 어려운 표현이 이해를 방해한다**는 점을 근거로 독자 분석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④는 독자의 배경지식 수준을 고려하는 것이 글의 목적과 주제를 결정하는 조건이라고 본다. 지문은 목적 수립·주제 선정·예상 독자 분석을 계획하기의 내용으로 나열할 뿐, 이들 사이에 그런 결정 관계가 있다고 설명하지 않는다. 빈칸 뒤의 내용도 목적·주제의 결정이 아니라 **독자의 이해와 메시지 전달**에 초점을 둔다.

NoteBase

문 9. 다음 시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

잘 있거라, 짧았던 밤들아
창밖을 떠돌던 겨울 안개들아
아무것도 모르던 촛불들아, 잘 있거라
공포를 기다리던 흰 종이들아
망설임을 대신하던 눈물들아
잘 있거라,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열망들아

장님처럼 나 이제 더듬거리며 문을 잠그네
가엾은 내 사랑 빈집에 갇혔네

— 기형도, 「빈집」 —

① 대상들을 호명하며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② '빈집'은 상실감으로 공허해진 내면을 상징하고 있다.
③ 영탄형 어조를 활용해 이별에 따른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④ 글 쓰는 행위를 통해 잃어버린 사랑의 회복을 열망하고 있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잘 있거라'라는 작별 인사와 '문을 잠그네'라는 표현은 **사랑의 상실과 단절**을 드러낸다. '나는 쓰네'는 이별의 슬픔을 글로 표현하는 행위이며,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려는 열망으로 보기 어렵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화자는 '밤들아', '겨울 안개들아', '촛불들아'처럼 사랑의 기억과 연결된 **대상들을 직접 부른다**. 이들에게 '잘 있거라'라고 작별을 고하고 자신의 사랑을 '가엾은' 것으로 표현하여 이별의 안타까움을 드러낸다.

② O: 첫 행의 '사랑을 잃고'는 화자가 사랑을 상실한 상태임을 밝힌다. 마지막의 '가엾은 내 사랑 빈집에 갇혔네'에서 '빈집'은 사랑을 잃은 뒤 **공허해진 화자의 내면**을 상징한다. 문을 잠그는 행위는 그 내면이 닫혀 있음을 보여 준다.

③ O: 영탄형 어조는 감정을 강하게 드러내는 말투이다. 대상을 부르는 '-아'와 반복되는 작별 인사 '잘 있거라', 마지막의 '가엾은 내 사랑'에는 화자의 감정이 직접 실려 있다. 이러한 어조는 **이별에 따른 슬픔과 안타까움**을 부각한다.

④ X: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는 사랑을 잃은 화자가 그 심정을 글로 표현한다는 뜻이다. 화자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열망들'에게 작별을 고하고, 끝에서는 문을 잠근 채 사랑이 빈집에 갇혔다고 말한다. 따라서 글쓰기는 **상실의 슬픔을 표현하는 행위**이며, 잃어버린 사랑의 회복을 열망하는 행위로 해석하기 어렵다.

NoteBase

문 10.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반드시 갚는 조건임을 강조하면서 그는 마치 성경책 위에다 오른손을 얹고 말하듯이 엄숙한 표정을 했다.
하마터면 나는 잊을 뻔했다. 그가 적시에 일깨워 주었기 망정이지 안 그랬더라면 빌려주는 어려움에만 골똘한 나머지 빌려줬다 나중에 돌려받는 어려움이 더 클 거라는 사실은 생각도 못 할 뻔했다. 그렇다. 끼니조차 감당 못 하는 주제에 막벌이 아니면 어쩌다 간간이 얻어걸리는 출판사 싸구려 번역 일 가지고 어느 해가※에 빚을 갚을 것인가. 책임이 따르는 동정은 피하는 게 상책이었다. 그리고 기왕 피할 바엔 저쪽에서 감히 두말을 못 하도록 야멸치게 굴 필요가 있었다.
"병원 이름이 뭐죠?" "원 산부인괍니다." "지금 내 형편에 현금은 어렵군요. 원장한테 바로 전화 걸어서 내가 보증을 서마고 약속할 테니까 권 선생도 다시 한번 매달려 보세요. 의사도 사람인데 설마 사람을 생으로 죽게야 하겠습니까. 달리 변통할 구멍이 없으시다면 그렇게 해 보세요."
내 대답이 지나치게 더디 나올 때 이미 눈치를 챈 모양이었다. 도전적이던 기색이 슬그머니 죽으면서 그의 착하디착한 눈에 다시 수줍음이 돌아왔다. 그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 보였다.
"원장이 어리석은 사람이길 바라고 거기다 희망을 걸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한테서 수술 비용을 받아 내기가 수월치 않다는 걸 입원시키는 그 순간에 벌써 알아차렸어요."
— 윤흥길,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에서 —
※ 해가(奚暇): 어느 겨를

①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심리를 전지적 위치에서 전달하고 있다.

② 서술자가 등장인물이 되어 다른 등장인물의 행동을 진술하고 있다.

③ 서술자가 주인공으로서 유년 시절을 회상하며 갈등 원인을 해명하고 있다.

④ 서술자가 주관을 배제하고 외부 관찰자의 시선으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이야기 속 인물인 '나'가 권 선생과 대화하면서 그의 표정과 행동을 전한다. 권 선생의 내면은 직접 아는 것이 아니라 관찰한 모습을 바탕으로 짐작하므로 **1인칭 관찰자 시점**에 해당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전지적 서술자는 인물의 내면을 직접 파악하여 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의 '나'는 권 선생의 심리를 '눈치를 챈 모양이었다'처럼 **관찰을 바탕으로 추측**한다.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과 다른 인물의 내면까지 아는 전지적 서술은 구별해야 한다.

② O: 서술자인 '나'는 권 선생에게 말을 건네고 그의 부탁에 답하는 등 **이야기 속 인물로 사건에 참여**한다. 동시에 권 선생이 엄숙한 표정을 짓고, 눈빛이 달라지며, 고개를 흔드는 모습을 전달한다. 이처럼 등장인물인 '나'가 다른 인물의 말과 행동을 중심으로 서술하므로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③ X: 제시된 장면은 '나'가 권 선생의 금전적 부탁에 대응하는 상황이다. **유년 시절의 회상은 나타나지 않으며**, 어린 시절의 경험으로 갈등의 원인을 해명하지도 않는다. '나'는 권 선생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와 대화하는 인물로 서술에 참여한다.

④ X: '책임이 따르는 동정은 피하는 게 상책이었다'에는 돈을 빌려주지 않으려는 '나'의 판단이 드러난다. '야멸치게 굴 필요가 있었다' 역시 자신의 태도에 관한 생각이다. 따라서 외부 관찰자가 주관을 배제한 서술이 아니라, **작중 인물인 '나'의 주관이 드러나는 서술**이다.

NoteBase

문 11. 다음 대화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은지: 최근 국민 건강 문제와 관련해 '설탕세' 부과 여부가 논란인데, 나는 설탕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러면 당 함유 식품의 소비가 감소하게 되고, 비만이나 당뇨병 등의 질병이 예방되니까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야.
운용: 설탕세를 부과하면 당 소비가 감소한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니?
은지: 세계보건기구 보고서를 보면 당이 포함된 음료에 설탕세를 부과하면 이에 비례해 소비가 감소한다고 나와 있어.
재윤: 그건 나도 알아. 그런데 설탕세 부과가 질병을 예방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당 섭취와 질병 발생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어.

① 은지는 첫 번째 발언에서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② 운용은 은지의 주장에 반대하고 있다.

③ 은지는 두 번째 발언에서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④ 재윤은 은지가 제시한 주장의 근거를 부정하고 있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운용은 설탕세 부과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니라, 당 소비가 감소한다는 말을 믿을 만한 **근거를 요청**하고 있다. 근거를 묻는 발언만으로 상대의 주장에 반대한다고 볼 수는 없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은지는 첫 번째 발언에서 '설탕세 부과 여부'를 논란거리로 소개하여 **대화의 화제**를 제시한다. 이어 설탕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자신의 입장과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를 밝힌다.

② X: 운용은 '설탕세를 부과하면 당 소비가 감소한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니?'라고 묻는다. 이는 은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요구하는 발언**이다. 설탕세를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거나 당 소비가 감소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아니므로, '은지의 주장에 반대하고 있다'는 '은지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요청하고 있다'로 고쳐야 한다.

③ O: 은지는 두 번째 발언에서 세계보건기구 보고서를 인용하여, 당이 포함된 음료에 설탕세를 부과하면 소비가 감소한다는 내용을 제시한다. 이는 첫 번째 발언의 '설탕세 부과가 당 함유 식품의 소비를 줄인다'는 설명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근거로 제시**한 것이다.

④ O: 재윤은 '그건 나도 알아'라며 앞서 제시된 소비 감소에 관한 내용을 인정하면서도, 설탕세 부과가 질병을 예방한다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한다. 이어 당 섭취와 질병 발생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여, 은지가 주장한 **질병 예방 효과라는 근거를 부정**한다.

NoteBase

문 12. ㉠~㉤에 들어갈 단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우리 회사는 올해 최고 수익을 창출해서 전성기를 ㉠ 하고 있다.
◯ 그는 오래 살아온 자기 명의의 집을 ㉡ 하려 했는데 사려는 사람이 없다.
◯ 그들 사이에 ㉢이 심해서 중재자가 필요하다.
◯ 제가 부족하니 앞으로 많은 ㉤을 부탁드립니다.

① ㉠: 구가(謳歌)
② ㉡: 매수(買受)
③ ㉢: 알력(軋轢)
④ ㉤: 편달(鞭撻)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자기 집을 사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집을 팔려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에는 물건을 사들이는 '매수(買受)'가 아니라 **물건을 파는 '매도(賣渡)'**가 들어가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구가(謳歌)'는 행복이나 좋은 처지를 마음껏 즐긴다는 뜻으로 쓰인다. 회사가 최고 수익을 올려 가장 번성한 시기를 누리고 있으므로 **'전성기를 구가하다'**는 문맥에 맞는다.

② X: '매수(買受)'는 **물건을 사들이는 것**이다. 이 문장에서는 자기 명의의 집을 처분하려 하지만 살 사람이 없다고 했으므로, 집을 파는 행위를 뜻하는 **'매도(賣渡)'**로 고쳐야 한다.

③ O: '알력(軋轢)'은 생각이나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충돌하는 것을 뜻한다. 그들 사이의 **갈등과 충돌**이 심해 이를 조정할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문맥에 맞는다.

④ O: '편달(鞭撻)'은 채찍질하듯 경계하고 격려하는 것을 뜻한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앞으로 **잘못을 일깨워 주고 격려해 달라**고 부탁하는 문맥에 맞는다.

NoteBase

문 13.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이 일은 정말 힘에 부치는 일이다.

② 그와 나는 전부터 알음이 있던 사이였다.

③ 대문 앞에 서 있는데 대문이 저절로 닫혔다.

④ 경기장에는 걷잡아서 천 명이 넘게 온 듯하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경기장에 온 인원수를 대강 짐작하는 문맥이므로 '걷잡아서'를 **'겉잡아서'**로 고쳐야 한다. '걷잡다'는 흐름이나 기세를 붙들어 제어하거나 마음을 억제한다는 뜻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부치다'는 어떤 일을 감당하기에 **힘이나 능력이 모자라다**라는 뜻이다. 이 일을 해내기가 벅차다는 의미이므로 '힘에 부치는 일'은 적절한 표현이다.

② O: '알음'은 **사람끼리 서로 아는 일**을 뜻하는 명사이다. 두 사람이 전부터 서로 알고 지냈다는 문맥이므로 '알음이 있던 사이'라고 쓸 수 있다.

③ O: '닫히다'는 '닫다'의 **피동사**로, 문이 닫아지는 상황을 나타낸다. 대문이 저절로 닫아졌다는 문맥이므로 그 활용형인 '닫혔다'가 적절하다. '닫치다'는 문을 세게 닫는다는 뜻으로 '문을 닫치다'처럼 쓴다.

④ X: 경기장에 온 사람이 천 명을 넘을 것이라고 대강 추산하는 문맥이므로 **'겉잡아서'**로 고쳐야 한다. '겉잡다'는 겉으로 보아 대략 헤아린다는 뜻이다. '걷잡다'는 흘러가는 형세나 기세를 붙들어 제어하거나 마음을 진정시키고 억제한다는 뜻이므로 인원수를 추산하는 이 문맥에 맞지 않는다.

NoteBase

문 14. ㉠~㉢의 한자 표기로 올바른 것은?

◯ 복지부 ㉠ 장관은 의료시설이 대도시에 편중된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
◯ 박 주무관은 사유지의 국유지 편입으로 발생한 주민들의 피해를 ㉡ 보상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 김 주무관은 이 팀장에게 부서 운영비와 관련된 ㉢ 결재를 올렸다.

① ㉠: 長官, ㉡: 補償, ㉢: 決裁
② ㉠: 將官, ㉡: 報償, ㉢: 決裁
③ ㉠: 長官, ㉡: 報償, ㉢: 決濟
④ ㉠: 將官, ㉡: 補償, ㉢: 決濟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복지부를 이끄는 '장관'은 **長官**, 사유지 편입으로 생긴 피해를 갚는 '보상'은 **補償**으로 쓴다. 팀장에게 업무상 승인을 받는 '결재'는 **決裁**이다.

대응 관계 해설

㉠ 장관: 복지부의 우두머리로서 대책 마련을 지시하는 사람이므로 **長官**으로 쓴다. 長은 '우두머리 장', 官은 '벼슬 관'이다. 將官은 장성급 군인을 가리키므로 이 문맥에 맞지 않는다.

㉡ 보상: 사유지가 국유지로 편입되면서 주민들에게 생긴 **손해를 갚는 것**이므로 補償으로 쓴다. 補는 '기울 보', 償은 '갚을 상'이다. 報償은 남이 한 일이나 수고에 보답하는 것이므로, 피해를 메워 주는 이 문맥의 보상과 구별한다.

㉢ 결재: 부서 운영비에 관한 안건을 팀장에게 올려 **상급자의 승인을 받는 것**이므로 決裁로 쓴다. 決은 '결단할 결', 裁는 '마를 재'이다. 決濟는 대금을 주고받아 거래 관계를 끝맺는 것이므로, 안건을 검토하여 승인하는 결재와 구별한다.

㉠ 長官, ㉡ 補償, ㉢ 決裁의 대응은 ①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5.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는 개별적으로 고립된 채 살아가는 존재일 수 없다. 사회 속에서 여럿이 모여 '복수(複數)'의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다. 복수의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는 종(種)적인 차원에서 보면 보편적이고 동등한 존재이다. 그러나 우리는 각각 유일무이성을 지닌 '단수(單數)'이기도 하다. 즉 모든 인간은 개인으로서 고유한 인격체라는 특수성을 지닌다. 사회 속에서 우리는 보편적 복수성과 특수한 단수성을 겸비한 채 살아가고 있는 셈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다원적 존재이다. 이러한 존재들로 구성된 다원적 사회에서는 어떠한 획일화도 시도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 같은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타인을 포용하는 공존의 태도가 필요하다. 공동체 정화 등을 목적으로 개별적 유일무이성을 제거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다원성을 파괴하는 일이다.

① 우리는 고립된 상태에서 '단수'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② 우리는 다원성을 지닌 존재로서 포용적으로 공존해야 한다.

③ 개인의 유일무이성을 보존하려는 제도는 개인의 보편적 복수성을 침해한다.

④ 개인의 특수한 단수성을 제거하려는 시도는 사회의 다원성을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인간은 보편적 복수성과 특수한 단수성을 함께 지닌다. 개인의 **유일무이성을 보존**하는 것은 복수성을 침해하는 일이 아니라, **사회의 다원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글의 첫머리에서 인간은 개별적으로 고립된 채 살 수 없으며 사회 속에서 여럿이 모여 살아가는 존재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개인이 고유한 존재라는 뜻의 '단수'를 **타인과 고립되어 살아간다는 뜻으로 볼 수 없다**.

② O: 인간은 종의 차원에서 보편적이고 동등하면서도 개인마다 유일무이한 인격을 지니므로 다원적 존재이다. 글은 이러한 존재들이 함께 살아가려면 획일화를 시도하지 않고 **타인을 포용하는 공존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밝힌다.

③ X: 보편적 복수성은 인간이 사회 속에서 여럿으로 살아가며 종의 차원에서 보편적이고 동등하다는 속성이고, 특수한 단수성은 각자가 고유한 인격체라는 속성이다. 글은 인간이 이 두 속성을 **함께 지닌다**고 설명하므로, 개인의 유일무이성을 보존하는 제도가 보편적 복수성을 침해한다고 추론할 수 없다. 개인의 고유성을 보존하는 것은 다원적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

④ O: 글의 마지막 문장은 공동체 정화 등을 목적으로 개별적 유일무이성을 제거하는 일이 사회의 다원성을 파괴한다고 설명한다. 개인의 특수한 단수성을 없애면 **서로 다른 고유한 인격체들의 공존**이라는 다원적 사회의 바탕이 무너지므로, 선지의 내용을 추론할 수 있다.

NoteBase

문 16.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매우 치라 소리 맞춰, 넓은 골에 벼락치듯 후리쳐 딱 붙이니, 춘향이 정신이 아득하여, "애고 이것이 웬일인가?" 일자(一字)로 운을 달아 우는 말이, "일편단심 춘향이 일정지심 먹은 마음 일부종사 하겠더니 일신난처 이 몸인들 일각인들 변하리까? 일월 같은 맑은 절개 이리 힘들게 말으시오."
"매우 치라." "꽤 때리오." 또 하나 딱 부치니, "에고." 이자(二字)로 우는구나. "이부불경 이내 마음 이군불사와 무엇이 다르리까? 이 몸이 죽더라도 이도령은 못 잊겠소. 이 몸이 이러한들 이 소식을 누가 전할까? 이왕 이리 되었으니 이 자리에서 죽여 주오."
"매우 치라." "꽤 때리오." 또 하나 딱 부치니, "에고." 삼자(三字)로 우는구나. "삼청동 도련님과 삼생연분 맺었는데 삼강을 버리라 하소? 삼척동자 아는 일을 이내 몸이 조각조각 찢겨져도 삼종지도 중한 법을 삼생에 버리리까? 삼월삼일 제비같이 훨훨 날아 삼십삼천 올라가서 삼태성께 하소연할까? 애고애고 서러운지고."
— 「춘향전」에서 —

① 동일한 글자를 반복함으로써 리듬감을 조성하고 있다.

② 숫자를 활용하여 주인공이 처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③ 등장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주인공의 내적 갈등이 해결되고 있다.

④ 유교적 가치를 담고 있는 말을 활용하여 주인공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춘향은 매를 맞으면서도 **이 도령에 대한 절개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는다. 매질을 명하는 말과 춘향의 응답은 내적 갈등의 해결이 아니라 **인물 사이의 대립이 계속됨**을 보여 준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일편단심·일정지심·일부종사', '이부불경·이군불사', '삼청동·삼생연분·삼강'처럼 **같은 글자로 시작하는 말들을 연이어 사용**한다. '일·이·삼'을 각각 반복하고 비슷한 문장 구조를 이어 가면서 리듬감을 조성한다.

② O: 매를 한 대씩 더 맞을 때마다 '일자(一字)', '이자(二字)', '삼자(三字)'로 운을 달아 운다. **매를 맞는 횟수와 숫자를 활용한 말**을 연결하여, 춘향이 계속 매를 맞으며 고통을 겪는 상황을 제시한다.

③ X: 내적 갈등은 한 인물의 마음속에서 서로 다른 생각이나 욕구가 충돌하는 것이다. 춘향은 '이 몸이 죽더라도 이도령은 못 잊겠소'라고 말하며 처음부터 절개를 지키겠다는 태도를 유지한다. '매우 치라'는 명령도 반복되므로, 대화를 통해 내적 갈등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매질을 가하는 쪽과 이에 굴하지 않는 춘향의 외적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④ O: '일부종사'와 '이부불경'은 한 남편만을 섬긴다는 유교적 정절 관념을 담은 말이다. 춘향은 이를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는 '이군불사'와 연결하고, '삼강', '삼종지도'도 언급한다. 이러한 유교적 가치를 근거로 **고통을 겪더라도 이 도령에 대한 절개를 버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

NoteBase

문 17.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소설의 유통 방식은 '구연에 의한 유통'과 '문헌에 의한 유통'으로 나눌 수 있다. 구연에 의한 유통은 구연자가 소설을 사람들에게 읽어 주는 방식으로, 글을 모르는 사람들과 글을 읽을 수 있지만 남이 읽어 주는 것을 선호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구연자는 '전기수'로 불렸으며, 소설 구연을 통해 돈을 벌던 전문적 직업인이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문헌에 의한 유통에 비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많아서 유통 범위를 넓히는 데 뚜렷한 한계가 있었다.
문헌에 의한 유통은 차람, 구매, 상업적 대여로 나눌 수 있다. 차람은 소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직접 빌려서 보는 것으로, 알고 지내던 개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구매는 서적 중개인에게 돈을 지불하고 책을 사는 것인데, 책값이 상당히 비쌌기 때문에 소설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상업적 대여는 세책가에 돈을 지불하고 일정 기간 동안 소설을 빌려 보는 것이다. 세책가에서는 소설을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빌려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사람도 소설을 쉽게 접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조선 후기 사회에서 세책가가 성행하게 되었다.

① 전기수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소설을 구연하였다.

② 차람은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책을 빌려 보는 방식이다.

③ 문헌에 의한 유통은 구연에 의한 유통에 비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적었다.

④ 조선 후기에 세책가가 성행한 원인은 소설을 구매하는 비용보다 세책가에서 빌리는 비용이 적다는 데 있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차람은 **알고 지내는 개인에게 소설을 직접 빌려 보는 방식**이다. ②의 '대가를 지불하고'는 세책가에 돈을 내고 빌리는 **상업적 대여**와 혼동한 표현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첫째 문단에서 구연은 글을 모르는 사람들과 글을 읽을 수 있지만 남이 읽어 주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고 했다. 전기수는 이러한 **소설 구연으로 돈을 버는 전문적 직업인**이므로,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소설을 구연했다는 설명은 지문과 일치한다.

② X: 둘째 문단에서 차람은 소설을 소유한 사람에게 직접 빌려 보는 것으로, 알고 지내던 개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졌다고 했다. 차람의 설명에 **'대가를 지불하고'라는 조건을 덧붙인 것**이 잘못이다. 돈을 지불하고 일정 기간 소설을 빌려 보는 것은 세책가를 통한 상업적 대여이다.

③ O: 첫째 문단에서 구연에 의한 유통은 문헌에 의한 유통보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많았다고 했다. 이를 비교 방향을 바꾸어 표현하면, 문헌에 의한 유통은 구연에 의한 유통보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적었다**는 뜻이다.

④ O: 둘째 문단에서 책값이 상당히 비싸 소설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세책가에서는 **구매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소설을 빌릴 수 있었다고 했다. 이 때문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사람도 소설을 쉽게 접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조선 후기에 세책가가 성행했다.

NoteBase

문 18.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삼국사기』는 본기 28권, 지 9권, 표 3권, 열전 10권의 체제로 되어 있다. 이 중 열전은 전체 분량의 5분의 1을 차지하며, 수록된 인물은 86명으로, 신라인이 가장 많고, 백제인이 가장 적다. 수록 인물의 배치에는 원칙이 있는데, 앞부분에는 명장, 명신, 학자 등을 수록했고, 다음으로 관직에 있지는 않았으나 기릴 만한 사람을 실었다.

반신(叛臣)의 경우 열전의 끝부분에 배치되어 있다. 이들을 수록한 까닭은 왕을 죽인 부정적 행적을 드러내어 반면교사로 삼는 데에 있었으나,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있어 흥미롭다. 가령 고구려의 연개소문은 반신이지만, 당나라에 당당히 대적한 민족적 영웅의 모습도 포함되어 있다. 흔히 『삼국사기』에 대해, 신라 정통론에 기반해 있으며, 유교적 사관에 따라 당시의 지배 질서를 공고히 하고자 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연개소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삼국사기』는 기존 평가와 달리 다면적이고 중층적인 역사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① 『삼국사기』 열전에 고구려인과 백제인도 수록되었다는 점은 이 책이 신라 정통론을 계승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② 『삼국사기』 열전에 수록된 반신 중에는 이 책에 대한 기존 평가를 다르게 할 수 있는 사례가 있다.

③ 『삼국사기』 열전에는 기릴 만한 업적이 있더라도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은 수록되지 않았다.

④ 『삼국사기』의 체제 중에서 열전이 가장 많은 권수를 차지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연개소문은 반신으로 수록되었지만, 당나라에 당당히 대적한 **민족적 영웅의 모습**도 함께 제시된다. 이는 『삼국사기』를 유교적 지배 질서의 강화라는 관점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근거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고구려인과 백제인도 수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신라 정통론을 계승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글은 신라인이 가장 많이 수록되었다고 밝히고, 『삼국사기』가 신라 정통론에 기반한다는 기존 평가도 소개한다. 다른 나라 인물의 수록과 신라 중심의 역사관은 양립할 수 있다.

② O: 반신을 수록한 목적은 왕을 죽인 부정적 행적을 드러내어 반면교사로 삼는 데 있었다. 그러나 연개소문에 대해서는 **당나라에 대적한 민족적 영웅의 모습**도 담았다. 이러한 서술은 유교적 사관에 따라 지배 질서를 공고히 하려 했다는 기존 평가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우므로, 『삼국사기』를 다면적이고 중층적인 역사 텍스트로 보는 근거가 된다.

③ X: 첫 문단은 명장·명신·학자 다음에 **관직에 있지 않았으나 기릴 만한 사람**을 실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도 수록되었으며, 관직에 오른 사실이 모든 수록 인물의 필수 조건은 아니다.

④ X: 첫 문단에 제시된 권수는 본기 28권, 지 9권, 표 3권, 열전 10권이다. 가장 많은 권수를 차지하는 것은 **본기 28권**이며, 열전은 10권으로 그보다 적다.

NoteBase

문 19.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프랑스에서 의무교육 제도를 실시하면서 정규학교에 입학하기 어려운 지적장애아, 학습부진아를 가려내고자 하였다. 이에 기초 학습 능력 평가를 목적으로, 1905년 최초의 IQ 검사가 이루어졌다. 이 검사를 통해 비로소 인간의 지능을 구체적으로 수치화하고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오랫동안 IQ가 높으면 똑똑한 사람, 그렇지 않으면 머리가 좋지 않고 학습에도 부진한 사람으로 판단했다. 물론 IQ가 높은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에 비해 읽기나 계산 등 사고 기능과 관련된 과목에서 높은 성취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는 IQ 검사가 기초 학습에 필요한 최소 능력인 언어 이해력, 어휘력, 수리력 등을 측정하기 때문이다. 학습의 기초 능력을 측정하는 IQ 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아이는 동일한 능력을 측정하는 학업 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문제는 IQ 검사가 인간의 지능 중 일부만을 측정한다는 점이다.

① 최초의 IQ 검사는 학습 능력이 우수한 아이를 고르기 위해 시행되었다.

② IQ 검사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인간의 지능을 수치로 비교할 수 없었다.

③ IQ가 높은 아이라도 전체 지능은 높지 않을 수 있다.

④ IQ가 높은 아이가 읽기 능력이 좋을 확률이 높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최초의 IQ 검사는 학습 능력이 우수한 아이를 선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규학교에 입학하기 어려운 아이를 가려내기 위해** 기초 학습 능력을 평가한 검사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첫 문단에 따르면 프랑스는 의무교육을 실시하면서 정규학교에 입학하기 어려운 지적장애아와 학습부진아를 가려내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1905년 최초의 IQ 검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검사의 목적은 우수한 아이의 선발이 아니라 **기초 학습 능력을 평가하여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를 가려내는 것**이다.

② O: 첫 문단은 IQ 검사를 통해 '비로소' 인간의 지능을 구체적으로 수치화하고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비로소'는 그때에 이르러서야 가능해졌다는 뜻**이므로, 글의 설명에 따르면 그 이전에는 인간의 지능을 수치로 비교할 수 없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③ O: 마지막 문장은 IQ 검사가 인간의 지능 중 **일부만을 측정한다**고 밝힌다. 따라서 IQ가 높다는 것은 검사에서 측정한 능력이 높다는 뜻이며, 측정하지 않은 능력까지 모두 높다는 뜻은 아니다. 이 때문에 IQ가 높은 아이라도 전체 지능은 높지 않을 수 있다.

④ O: 둘째 문단은 IQ가 높은 아이가 읽기나 계산과 관련된 과목에서 높은 성취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IQ 검사가 측정하는 언어 이해력과 어휘력 등이 읽기에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읽기 능력이 좋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론할 수 있으며, 모든 아이가 반드시 그렇다는 뜻은 아니다.

NoteBase

문 20.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글은 소리를 나타내는 표음문자여서 한국어 문장을 읽는 데 학습해야 할 글자가 적지만, 한자는 음과 상관없이 일정한 뜻을 나타내는 표의문자여서 한문을 읽는 데 익혀야 할 글자 수가 훨씬 많다. 이러한 번거로움에도 한글과 달리 한자가 갖는 장점이 있다. 한글에서는 동음이의어, 즉 형태와 음이 같은데 뜻이 다른 단어가 많아 글자만으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한자는 그렇지 않다. 예컨대, 한글로 '사고'라고만 쓰면 '뜻밖에 발생한 사건'인지 '생각하고 궁리함'인지 구별할 수 없다. 한자로 전자는 '事故', 후자는 '思考'로 표기한다. 그런데 한자는 문맥에 따라 같은 글자가 다른 뜻으로 쓰이지는 않지만 다른 문장성분으로 사용되기도 해 혼란을 야기한다. 가령 '愛人'은 문맥에 따라 '愛'가 '人'을 수식하는 관형어일 때도, '人'을 목적어로 삼는 서술어일 때도 있는 것이다.

① 한문은 한국어 문장보다 문장성분이 복잡하다.

② '淨水'가 문맥상 '깨끗하게 한 물'일 때 '淨'은 '水'를 수식한다.

③ '愛人'에서 '愛'의 문장성분이 바뀌더라도 '愛'는 동음이의어가 아니다.

④ '의사'만으로는 '병을 고치는 사람'인지 '의로운 지사'인지 구별할 수 없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지문은 같은 한자가 문맥에 따라 **다른 문장성분으로 쓰일 수 있음**을 설명한다. 이것만으로 한문의 문장성분이 한국어 문장보다 더 복잡하다고 추론할 수는 없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한문을 읽으려면 더 많은 글자를 익혀야 한다는 설명은 글자 학습의 부담에 관한 것이며, 문장성분의 복잡성을 비교한 것이 아니다. '愛'가 관형어나 서술어로 쓰인다는 예도 **같은 글자가 문맥에 따라 다른 문장성분으로 기능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한문은 한국어 문장보다 문장성분이 복잡하다'가 아니라 '한자는 문맥에 따라 문장성분이 달라질 수 있다'로 이해해야 한다.

② O: '깨끗하게 한 물'에서 '깨끗하게 한'은 뒤의 명사 '물'을 꾸민다. 따라서 이 의미의 '淨水'에서 '淨'은 '水'를 **수식하는 관형어**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지문에서 '愛'가 '人'을 수식할 수 있다고 한 것과 같은 관계이다.

③ O: 지문은 같은 한자가 문맥에 따라 다른 뜻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장성분으로 사용되기도 한다고 설명한다. 이에 따르면 '愛人'의 '愛'가 관형어나 서술어로 달리 쓰이더라도 **문장성분의 변화가 곧 뜻의 차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동음이의어는 형태와 음이 같으면서 뜻이 다른 단어이므로, 문장성분이 바뀐다는 이유만으로 '愛'를 동음이의어라고 할 수 없다.

④ O: 한글은 소리를 나타내므로 서로 다른 뜻의 단어도 같은 소리이면 동일하게 적힐 수 있다. '의사'도 '병을 고치는 사람'과 '의로운 지사'를 모두 나타낼 수 있으므로, **문맥이나 한자 표기 없이 한글 표기만으로는** 두 뜻을 구별하기 어렵다. 이는 지문에서 '사고'만으로 '뜻밖에 발생한 사건'과 '생각하고 궁리함'을 구별할 수 없다고 한 설명을 적용한 것이다.

NoteBase